

## 재일코리언의 육아에 관한 연구<sup>1)</sup>

— 재일코리언3세의 육아에 착목하여 —

郭素榮(일본류통경제대학대학원)

### I. 서론

오늘날, 일본은 사회구조가 크게 변동하는 속에서 글로벌리제이션의 진전·저출산화에 따른 난민수용과 외국인노동자의 본격적인 수용 등 외국인과의 공생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속에서, 일본에 있어서의 재일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일코리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배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논문은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垣田2005, 魁生2005), 3세의 육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드물다. 2005년도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는 201만1,555명이며, 한국·조선 국적이 59만8,687명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코리언의 저출산화, 매년 만명정도의 귀화에 따른 특별영주자의 감소로 인하여 1991년도의 69만3,050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법무성입국관리국)

아라카와구(荒川區)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1만3,303명이며, 한국·조선국적이 7,358명으로 55%를 나타내고 있다(2005년 9월말 현재 荒川구청 외국인 등록과). 荒川區에는 에도 시대로 부터部落인 「동화지구」와 전쟁전부터 「조선인部落」이 존재했다. 荒川區에 있어서의 재일코리언의 역사는 길며, 특히 1910년 후반에는 제주도에서 일자리를 찾아 온 사람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뉴커머<sup>2)</sup>도 증가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루트로하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사람을 선조로, 현재 일본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국적(귀화), 한국국적(대한민국), 조선국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별없이 「재일코리언」으로 총칭한다. 1947년 외국인등록령교부 당시, 한반도에는 대한민국도 북한도 성립되지 않았다(1948년 성립). 「북한」=「조선국적」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2) 뉴커머(new comer)는 1980년대 이후 일본에 건너온 외국인을 표현하는 언어로서 난민으로서 온 사람, 국제결혼에 의한 정주자, 아시아각국과 중남미에서 온 노동자, 유학생 등을 말한다. 올드커머(old comer)는 전쟁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조선인 및 타이완계 중국인을 표현하는 언어이다.

한반도출신의 1세는 고령화하여, 3세가 중심세대가 되고 있으며, 3세·4세의 세대는 일본사회에의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재일코리언의 육아는, 당연히 보통 부모의 육아와 다를바 없다고 예상되지만,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재일코리언은 육아에 대한 다른 성격의 고민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재일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일코리언의 역사적 배경을 인식한 다음, 특히3세의 육아관과 육아의 실정을 밝히고,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외국인의 수용과 공생사회를 고려할 때, 재일외국인아동의 증가가 예상됨으로서 재일외국인으로서의 역사가 가장 긴 재일코리언의 육아실정을 고찰하는 것의 의미는 크다.

## II. 연구방법

2005년 荒川區의 외국인아동의 보육원입소아동의 총수는 502명, 그중 조선국적이 84명, 한국국적이 303명이다(荒川區아동복지과). 조선국적의 84명의 부모는 특별영주자자격의 재일코리언이며, 한국국적의 303명의 부모는 재일코리언을 포함한 유학·취로를 목적으로 입국한 뉴커머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동경도내의 우수한 재일코리언거주지역인 荒川區내에 거주하면서 취학전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30~40세까지의 재일코리언 3세의 어머니 20명이다. 연구방법은, 인터뷰조사와 국적·경험·생활사 등이 육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명중에서 국적별로 4명을 선정해 사례연구를 채용하여, 4명을 대상으로한 케이스스터디를 실시했다((2005년11월~2006년4월). 인터뷰는 협력자에 대한 윤리적 배려로서 사전에 인터뷰의 목적, 녹음, 성과의 공개방법, 공개에 따른 사전 체크 등의 설명을 행하여, 동의를 얻은 후 비밀엄수를 위해 개별적으로 이루어 졌다. 인터뷰가이드<sup>3)</sup>에 따른 반구조화인터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 졌다. 본 연구는, 필자 자신의 육아를 통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일코리언을 선정하는 매우 한정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프라이버시와 인권문제 등의 민감한 문제가 근저에 있기 때문에 인터뷰의 승낙을 얻는 것은 곤란했기 때문이다.

3) 인터뷰가이드 「1.기본적 특성(국적, 직업) 2.배우자의기본적 특성 및 육아에 대한도움 3.육아의 현황(아이의 수, 보육상황) 4. 육아에 있어서의 고민 5. 아이의 아이덴티티확립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6. 가족 및 아이의 장래(영주, 진학) 7. 일본의 육아현황」

### Ⅲ. 연구결과

#### 1. 인터뷰의 결과

##### 1) 육아의 실정 및 육아관

재일코리언사회도 예외없이 저출산화에 의해,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평균 아이의 수는 2.6명이었다. 또한 아버지가 일로 인해 육아일을 도울 수 없는 가정이 많고 경제적 사정으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의 많은 역할을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육아는 즐겁다」고 말해,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재일코리언의 육아에 한해서는 종래의 성적역할분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아에 있어서의 고민은, 모든 대상자가 국적과 진학문제와 같은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었다.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이 좋아서 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해온 경우가 많았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아이를 민족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거나, 이미 형제가 다니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려워지기만해 그것은, 민족학교는 일본사립학교보다 지방공공단체로 부터 충분한 교육비 조성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2) 아이의 아이덴티티확립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재일코리언3세 및 아이들은 일본의 문화에 위화감 없이 융화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회화는 일본어와 모국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어가 모국어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모든 대상자는 모국어로의 회화와 그림책·CD·비디오 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통해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아이의 아이덴티티확립을 추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아이덴티티확립에 육아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모두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 일본문화에 친숙해 있기 때문에 특히, 언어에 관해서는 일본어가 모국어화 되어있는 상황이라 일본어로 회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대상자가 에스니시적인 교육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일본에 정주하기 위한 메리트 등의 이유로 일본학교에 진학시킬 것을 희망하는 이도 반정도 있었다.

### 3) 가족의 장래

일본에 영주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4명으로, 그중 9명은 부모자식이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영주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답했으며, 5명은 일본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영주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6명은 언젠가 모국(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또는 돌아가고 싶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의 적응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의 국적에 관한 질문에는, 최근에는 재일코리언의 국제결혼(일본인과의)과 일본에의 귀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상자는 아이가 일본국적을 선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 4) 일본의 육아환경에 대해서

어린이를 둘러싼 범죄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과 육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에게 일정수준의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부모는 너무 힘들고, 일본사회는 아직 재일코리언, 특히 조선국적의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반정도의 대상자가 말했다. 이중에서는 실제로 아이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상대가 재일코리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쓰는 대상자는, 아이들의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육아지원서비스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학급과 아동관, 패밀리서포트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도 소수 있었지만, 영유아건강검진 이외의 서비스는 이용한적이 없는 소극적인 대상자가 많았다. 그것은 보육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과 정보부족, 재일코리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저한 이유로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명)

국적	한국(7), 조선(12), 일본 (귀화)(1)
자녀의 수	1명(2), 2명(8), 3명(7), 4명(3)
보육상황	인가보육원(11), 유치원(3), 민족학교병설유치원(6)
근무상황	상근(4), 파트타임(6), 학생(1), 전업주부(9, 돕고있음)

표2 사례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A氏	B氏	C氏	D氏
국적 직업 자녀 수 보육상황*2 학력 가족의 장애 자녀의 진학	부부모두 조선 A보협회사 (파견 배*1 : 전기설비(자영) 3인 인가보육소 (구립) 부부모두 조선대졸 일본에영주 민족학교	부부모두 한국 B전업주부 배 : 불고기식당경영 3인 구립유치원 B : 고졸 (일본) 배 : 고졸 (일본) 영주지 미결정 일본학교	C한국, 배우자 조선 C친정의 국수가게도움 배 : 부동산회사경영 4인 인가보육소→유치원 (민족) C : 고졸 (일본) 배 : 조선대졸 일본에 영주 중학교까지 민족학교 고교부터 일본학교	D일본, 배우자 한국 D : 복지시설의 간호사 배 : 전기설비 (자영) 3인 인가보육소 (구립) D : 간호학교졸 배 : 대졸 (한국) 일본에 영주 일본학교

\*1은 배우자. \*2는 막내아이의 보육상황 2.사례연구

표3 사례연구의 요약

A	<p>민족학교출신으로 등하교길에 일본아이들이 놀고있는 공원을 지나치는 것이 가장 싫었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익숙해졌다. 출산 후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을때 다른엄마들과 어울리지 못해 얼른 돌아오곤 했다.A는 어린시절 부터 민족교육을 받는 것은 「조선인으로서 당연」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아이(5세)가 원치 않더라도, 학비가 아무리 비싸도 민족학교에 진학시킨다. 아이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정은 매우 강하다. 이미 민족학교에 진학해 있는 아이(2명)는 민족악기와 민족무용을 배우고 있고, 아이들의 에스닉아이덴티티계승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다. A는 국제화사회를 향해 재일코리아(조선국적)도 자신들만의 좁은세계뿐만 아니라 일본·한국사회와 많이 교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는 보육원 부모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일본·한국의 부모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민족학교학생에게JPT통학정기권 학생할인의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등 재일코리아로서의 활동도 적극적이다.</p>
B	<p>본명으로 일본학교에 다녀, 어릴적부터 「이지메」 를 당했기 때문에 괴로워서, 재일코리아이라는 사실이 싫었지만 부모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도록 항상 가르쳤기 때문에 집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눈에 띄는 차별은 줄었지만 아이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경험했으며, 재일코리아이라는 이유로 인사도 아는척도 하지않는 일본인도 있다. 아이들 세대에서는 차별이 없어지길 바랄 뿐이다. 가족 모두가 본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본명으로 일본의 유치원·초·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이의 아이덴티티확립을 위한 부모의 최소한의 노력으로서 한국학교의 「토요학교」 에서 전통·문화·언어에 접하게 하고 있다. 아이의 진학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자신과 같이 아이에게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일본학교에 진학시켜 스스로 극복하여, 정신적으로 강해지길 바란다. 일본의 육아환경은 아직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놀리티, 특히 재일코리아에게 있어서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p>
C	<p>일본학교에 「통명」 으로 다녔기 때문에, 일본아이들이 재일코리아 아이를 「이지메」 할 때의 괴로움과 자신의 국적을 숨기는데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두운 어린시절을 보냈다. 아이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결혼을 계기로 본명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배우자는 사업상 통명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민족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긍정적인 에스닉아이덴티티가 확립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민족고유의행사와 정기적인 한국의 친척방문, 자신의 뿌리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등, 아이들의 재일코리아로서의 아이덴티티형성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아이들의 진학문제는 대학수험의 메리트를 생각해 중학교까지 민족학교, 고교부터 일본의 사립학교에 본명으로 진학시킬 예정이다.아이들이 미래(직업)에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육아가 어느정도 안정되면 영양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정된 일에 종사하고 싶다.</p>

D	<p>「통명」으로 일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간호학교에 진학, 취직을 앞두고 일본국적을 취득했다. 취직이 어려워질까 우려한 것과 재일코리언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귀화의 이유이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취득해도 내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이들은 이중국적이며, D의 성을 사용해 일본식 이름으로 학교·보육원에 다니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아이덴티티를 지니길 바란다. 그러나 한국어가 매우 서툴고 학교·보육원에서는 일본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국적선택은 성인이 되면 아이에게 맡길 생각이지만, 부모입장에서는 어떤 국적을 선택하더라도 불안하다. 아이를 민족학교(한국)에 진학시키고 싶었지만 거리·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區内の 일본小學校에 취학시켰다(4살된 아이도 일본소학교진학예정). 배우자의 일도 일본에 자리잡고 있으며 일본에서 태어나자란 아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본에 영주하고 싶다.</p>
---	--

\* 국제선택 : 1985년에 국적법개정이 실시되어 국적취득을 종래의 부계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바뀌어,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생과 동시에 자동 취득한 이중국적은 20~22세까지 선택할 것을 의무화했다. 국적은 20세 이전에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15세 이전 이라면 법정대리인의 양친이 대리로 일본국적선택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4명은 재일코리언이지만 A는 민족학교, B는 본명으로 일본학교, C는 통명으로 일본학교, D는 통명에서 귀화라고 하는 서로 다른 어린시절을 보냈다. 표2와 같이 아이의 진학문제에 있어서 A는 「재일코리언이 민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하다」, B는 「본명으로 일본학교에 다녀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아이 스스로 극복하여 재일코리언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길 바란다」, C는 「국적을 숨겨온 자신의 괴로운 어린시절을 아이에게는 경험시키고 싶지 않다」, D는 「취직과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귀화를 선택했지만 국적이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4명 모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에 의해 플러스의 자기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준다는(田中2002), 아이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민족학교에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지 않고, 각자 다른 형태로 아이의 재일코리언으로서의 긍정적인 아이덴티티형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재일코리언 3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인식한 후에 육아의 실정을 검토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육아에 있어서의 남여의 전통적 역할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아이의 에스니시티적인 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세 번째, 재일코리언으로서의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 네 번째, 아이의 아이덴티티 확립에 육아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 등이 밝혀졌

다. 사례연구에서는, 에스니시티적인 교육과 아이덴티티형성을 포함한 육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국적과 민족교육의 열정보다 부모의 과거경험·생활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재일코리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젊은 세대는 국제결혼과 귀화 등에 따라서 다양화되고 있다. 전쟁전·후를 살아온 1세와 달리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 세대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정주의 땅 일본사회에 융화되어 사고방식도 문화에도 위화감이 없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마이노리티로서의 아이의 장래와 아이덴티티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또한, 오늘날 재일코리언에 대한 노골적·차별적인 발언과 행위는 줄어들고, 복지·교육에 있어서의 제도적 차별·배제도 사라지고 있지만 육아세대는 생활 속에서 차별을 느끼거나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점점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고 재일외국인은 한층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당연히 외국인 정주자가 증가하면 재일코리언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일외국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 후에 에스닉마이노리티의 문화·언어의유지·발전을 승인하고, 에스니시티적 교육을 원하는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조와 자연스럽게 에스니시티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매우 한정된 수법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재일코리언육아세대의 육아의 현황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일코리언의 육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일반화 하기위해 대상을 확대시킨 질적연구가 향후의 과제이다.

## 참 고 문 헌

- 垣田祐介 (2005) 「介護保険制度下の在日コリアン高齢者—2003年大阪市生野區調査から」  
大阪府立大學 『社會問題研究』 第54卷第2号
- 魁生由美子 (2005) 「大阪市生野區における福祉ネットワークの形成—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社會保障と生活支援」 『立命館産業社會論集』 第41卷第1号
- 吉岡増雄 (1995) 『在日外國人と社會保障』 社會評論社
- 原尻英樹 (1998)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 講談社
- 辻本久夫ほか (1994) 韓國兵庫青年會議所企畫 『親と子がみた在日韓國・朝鮮人白書』  
明石書店
- 杉尾健太郎・梁石日ほか (2004) 『となりのコリアン』 日本評論社
- 福岡安則・金明秀 (1997)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大學出版會

- 田中宏 編 (2002) 『在日コリアン権利宣言』 岩波ブックレットNO. 566
- 金東勳 (2004) 『共生時代の在日コリアン』 東信堂
- 版炭谷茂・大山博・細内信孝編著 (2004) 『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と社会企業の役割』 ぎょうせい
- 松井和 (2004) 『21世紀の子育て』 エイデル研究所